

##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2월 5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 연구원 소식

### 새 식구를 모셨습니다.

지난 주에도 새로운 식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하현주 님이 주인공입니다. 정경명 이사의 추천으로 우리 연구원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술분야에서 활동하신만큼 연구원과 자주 뵙고 오랫동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송년회 안내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사일난一事一難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3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시대를 노래하는 음유시인 박남준 작가와 함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본인의 책을 서로 나누는 도서나눔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도서를 다른 회원에게 기증하고 다른 회원의 추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행사이오니 많은 참여드립니다.**

- 시간 : 2023.12.16(토) 17시 - 20시

- 장소 : 장가네왕족발 2층 (전주 완산구 동문길24 / 063-282-7476)

## 경기평화누리길 제2구간 - 2

유영봉(연구원 모악회 회장 / 前 전주대학교 교수)



문수산성의 남문을 지나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마을을 건너 금세 애기봉에 다다랐다. 정상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었는데, 유료 입장이다.

한강의 물줄기는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대덕산 검룡소에서 발원한다. 이 물줄기는 강원도와 충청북도·경기도의 수많은 냇물 또는 강물과 합쳐져 남한강이 되었다가, 양평의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난 다음 유유히 서울을 감싸고 도는 한강이 된다. 그리고는 오두산 전망대에 다다라 잠시 '조강祖江'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바로 이 조강 중간에 우뚝 솟은 봉우리 하나가 애기봉이다.

애기봉은 강 건너 1.5km의 거리를 둔 북녘의 산하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마을은 물론 그 앞쪽의 논밭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도 망원경 안으로 들어오고, 능선 따라 붉은 띠를 이룬 흔적선痕迹線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이다. 맑은 날에는 개성의 송악산까지 육안으로 짚어보는 곳이다. 이곳 애기봉에는 애절한 전설 한 꼭지가 전해온다.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당시 평양감사에게 애기愛妓 하나가 있었다. 전쟁이 터지자 그들은 청나라의 말발굽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애기는 수백 리를 걷고 걸어 개풍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감사는 도중에 오랑캐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말았다. 애기는 홀로 강을 건너 지금의 월곶면 조강리에 머무르며, 감사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날마다 하성면 가금리의 쑥갓머리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염없이 북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애기는 병이 들고 말았다. 애기는 숨을 거두면서, 죽은 뒤에라도 감사를 기다려야겠으니, 자신을 산 정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동네 사람들은 유언에 따라 장례를 치른 다음, 쑥갓머리산을 애기봉이라고 불렀다.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설운도는 본명이 이영춘으로, 부산 해운대 출신이다. 그는 1982년 《KBS신인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했는데, 1983년 당시 KBS 이산가족 찾기로 전국이 울음바다가 되었을 때, <잃어버린 30년>이란 노래를 발표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설운도는 또 <애기봉>이란 노래를 나중에 발표하였다. 애기봉 전설을 가사에 담은 이 노래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먼저 1절이다.

“일천육백삼십육년 십이월 병자호란 때  
그날의 슬픈 역사 애기봉아 너는 알지  
한 맏한 어린 녀의 울음소리가 오늘도  
저 강물 따라 흘러 흘러서 가는데 애기봉아  
애기봉아 너는 어이 말이 없느냐”

“일천육백삼십육년 십이월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슬픈 역사 남한산성아 너는 알지  
피 맏한 어린 녀의 울음소리가 오늘도  
저강물 따라 흘러 흘러서 가는데 애기봉아  
애기봉아 너는 어이 말이 없느냐”

오늘날에도 애기봉은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고향 잃은 설움을 달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다. 따라서 애기봉은 예나 제나 이별의 한으로 솟은 봉우리요, 조강은 끝없는 그리움이 출렁이는 강으로 남고 말았다.



함경북도 평산 출신의 김규동 시인은 민족 통일의 간절한 염원을 <아침의 시>에서 아래와 같이 담았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이산가족들이 고향으로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어 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새해에는 숨이 차되 40년은 묵은  
묘향산 여우 울음소리 듣게 하시고  
금강산 일만 이천 봉 깎아지른 절벽 위를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어 가게 하소서.  
숨길 것 하나 없이 드러내 놓고 허허로운 삶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할 권리를 위해 소스라쳐 떨게 하소서.

그런데 조강이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강 본류는 구간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 상류의 강원도 태백시 구간에서는 골지천, 정선군 구간에서는 조양강, 영월군 구간에서는 동강 등으로 부른다.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에서 충청북도 단양군에 이르는 구간은 남한강이라고 부른다.

서울을 감싸고 도는 하류의 폭은 평균 1.2km 정도로 매우 넓은 편이니, 파주시 오두산성 근처에서는 2km를 훨씬 상회한다. 이처럼 수량이 풍부하고 강폭이 넓은 특징과 장점은 일찍이 수운에 활용되었다. 연유에서 지금도 서울에는 광나루의 한자 표기인 광진을 비롯해, 삼발나루에서 유래한 마포·상암나루·뚝섬나루·공암나루·송파나루·한강진·양화나루를 가리키는 양화진·동작나루·서강나루·노들나루를 의미하는 노량진·영등포 등 등 나루터에서 유래한 지명이 즐비하다.

그리고 '호湖' 자로 끝나는 이름으로 천호天湖와 동호東湖·행호幸湖 등이 있다. 해당 지역을 거치는 한강의 강폭이 유달리 넓어서, 마치 질펀하게 물이 권 호수를 닮았기에 생겨난 이름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이름은 한강에 놓인 다리 이름에서 가장 버젓하다. 살펴보면 광진교·동작대교·송파대교·양화대교·마포대교·서강대교·천호대교·동호대교 등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날마다 일컬어지지 않던가?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